

『녹기(綠旗)』에 나타난 ‘내선일체(內鮮一體)’와 ‘황국신민화’*

정 창 석**

(e-mail: chung51@dongduk.ac.kr)

目次

- | | |
|----------------|--------------------|
| 1. 머리말 | 3. 『녹기』와 ‘국어 상용’ |
| 2. ‘녹기연맹’의 활동상 | 4.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 |
| 1) 일반사회 교화 | 5. 맺음말 |
| 2) 생활 향상 | |
| 3) 문서 지도 | |
| 4) 중견 인물 양성 | |
| 5) 보건의 활동 | |
-

1. 머리말

일본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한국에서 발행된 잡지 『녹기(綠旗)』는 경성부(京城府) 초음정(初音町, 현재의 중구 오장동)에 자리하고 있던 ‘녹기연맹(綠旗聯盟)’의 기관지로, 1936년 1월에 창간되어 1944년 12월까지 간행되었다. 도중 1944년 3월부터는 『흥아문화(興亞文化)』로 개제되었다.

‘녹기연맹’은 도쿄제국대학 이학부 출신의 경성제대 예과 교수(화학) 쓰다 사카에(津田栄)가 창립한 사회 교화 단체이다. 쓰다 사카에는 학생 시대부터 일본의 일련종(日蓮宗)을 신봉하여 일본의 국체학(国体学)을 창시한 다나카 치가쿠(田中智学)의 ‘국주회(国柱会)’ 활동에 참여했다. ‘일련종’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 법화경(法華經)에 기대어 ‘일본 통합[一國同歸]’, ‘세계 통일[一天四海皆歸妙

* 본 논문은 2012년도 동덕여대 연구년 규정에 의해 작성된 것임.

** 동덕여대 교수. 일본사

法], ‘이상세계[仙国土] 건설’을 내건 어용 불교 종파이다. 쓰다 사카에는 1924년 경성제대에 부임하자 이것을 식민지 한국에 이식하려는 의도로 1925년 1월 ‘경성제대예과 입정회(立正會)’를 조직하고, 이 모임을 1925년 2월 ‘경성천업청년단(京城天業靑年團)’으로, 1930년 5월에는 다시 ‘녹기동인회(綠旗同人會)’로 개편하였다가, 1933년 2월 11일(紀元節) ‘녹기연맹’으로 재조직했다.

‘녹기연맹’은 강령으로 세 가지를 내걸었다.

1. 우리는 사회 발전의 법칙에 따라 인류의 낙토(樂土) 건설에 기여한다.
2. 우리는 우리 일본의 국체 정신에 입각하여 건국 이상의 실현에 공헌한다.
3. 우리는 인간 생활의 본질에 기반을 두고 각자 인격 완성에 노력한다.

또한 『녹기』는 창간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현대 문화는 우리에게 비약과 향상을 가져다 주었다. 모든 시설은 약진하여 상향선(上向線)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반면에 이것은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열을 내재하여 멈출 줄 모르는 상극(相克)을 드러내고 있다. 불안과 위기가 외쳐지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바야흐로 시국이 중대해지고 세상의 혼란은 점점 심해져 우리 임무의 중대성이 가중되고 있음을 실감한다. 여기에 우리는 월간 잡지 『녹기』를 창간하여 전 일본에 외치고자 한다.¹⁾

주요 인물로는 회장 쓰다 사카에, 주간(主幹) 쓰다 가타시(津田剛, 쓰다 사카에의 동생) 형제와 ‘녹기연맹’이 운영하는 일본식 여성 사회 교화 단체 ‘세이와여숙(清和女塾)’ 숙장 쓰다 요시에(津田よしえ, 쓰다 형제의 모), 쓰다 세쓰코(津田節子, 사카에의 처), 쓰다 미요코(津田美代子, 가타시의 처) 등 쓰다 일족(一族)과 경성제대 사학과(조선사) 출신의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 한국인으로 현영섭(玄永燮, 天野道夫), 이영근(李泳根, 河本竜男·上田竜男) 등이 활동했다. 초기에는 일본의 국체론(国体論), 여성의 사회 활동 등 계몽적인 문장이 많았으나 경성제대 교수들이 합류하고(高木市之助, 安倍能成 등), 중일전쟁(1937)과 태평양전쟁(1941)의 발발 등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자 일본인 문학자들의 기고가 두드러졌다.

또한 ‘녹기연맹’은 조선총독부의 어용 역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식민지 지배 정책을 앞서 가는 선견성(先見性)까지 보이며, 식민지 한국과 한국인의 동화(同化)를 위한 사회 교화를 부르짖어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와 ‘내선일체(內

1) 『綠旗』, 創刊号, 1936. 1. 1쪽.

鮮一體)’의 실현에 광분했다. ‘녹기연맹’의 인물들은 1940년 식민지 한국의 ‘신체제운동(新體制運動)’을 주도한 ‘국민총력조선연맹(國民總力朝鮮聯盟)’에도 대거 참여해 쓰다 가타시는 선전부장으로, 모리타 요시오는 기관지 편집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윽고 ‘녹기연맹’은 1942년 4월에 미나미 지로(南次郎) 조선 총독을 명예고문으로, 오노 로쿠이치로(大野綠一郎) 정무총감과 가와기시 분자부로(川岸文三郎) 국민총력조선연맹 총장을 고문으로 위촉함에 따라,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 지배 이념의 선견성을 뛰어넘어 적극적으로 선도하는 역할도 서슴지 않았다. 1942년 3월 ‘녹기연맹’은 회장인 쓰다 사카에가 도쿄 제일고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하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교수 아베 요시시게(安部能成)를 따라 도쿄로 이주하게 되자, 주간인 그의 동생 쓰다 가타시가 주도하게 된다.

‘녹기연맹’은 ‘녹기’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봄이 되면 온 산에 초목이 푸른 빛으로 뒤덮입니다. ‘녹기’는 언제나 생생한 생명이 넘치는 푸른색의 표징(表徵)입니다. ‘적기(赤旗)’의 빨간색이 투쟁을 의미하고, ‘흑기(黑旗)’의 검은색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달리 푸른색은 언제나 온화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황공하옵게도 메이지 천황(明治天皇) 어제(御製)에 ‘투명하게 퍼져나간 하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유구의 하늘도 푸른색입니다. 생명의 발전, 평화, 진리 같은 것들도 푸른색입니다.²⁾

그러나 사실은 ‘적기’와 ‘흑기’에 대항하여 ‘혈벗은 황토(黃土) 조선’에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를 펼쳐 ‘푸른빛’을 입히겠다는 ‘지배와 동화’의 논리를 합리화한 표현인 것이다. ‘녹기연맹’이 강령으로 내건 ‘국체 정신’과 ‘건국의 이상’에 대해 ‘녹기연맹’ 본부 강사 모리타 요시오(三田芳夫)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본은 건국 이래 만세일계(萬世一系) 천양무궁(天壤無窮)의 천황을 혈연적·신앙적 중심으로 우러러 발전해 왔습니다. 이민족은 이것에 동화되고 이문화는 이것에 통합되어 천황을 중심으로 뭉쳐서 내부의 사회 모순과 외부의 강적도 극복해 왔습니다. 이러한 국체를 단지 역사적 과거로, 혹은 단지 연구의 결론으로 보지 않고 의식적인 신념으로 다지자는 것입니다.

일본 국체 정신이란 만세일계(萬世一系) 천양무궁의 국체를 기초로 만세일계와 천양무궁을 더욱 계속시키려는 정신입니다. 여러 민족 문화를 동화하고 통합했던 국체에 기반을 두고 더욱 널리 동화하고 통합해 나가는 정신입니다. 사회 조직의 변혁에 항상 중추가 되었던 국체를 자각하여 현재의 꼭 막힌 사

2) 社告, 「綠旗聯盟の運動を語る」, 『綠旗』1940. 10. 120쪽.

회 조직의 변혁을 일으키려는 정신입니다. 외부의 강적에 대하여 모든 것을 천황에게 바쳐 지켜온 조국의 장래를 위해 더욱더 천황 중심의 결속을 굳게 다져 외부의 모순 극복에 나아가는 정신입니다.³⁾

결국 ‘녹기연맹’은 식민지 한국을 ‘동화’시켜 일본의 일부로 ‘통합’하려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 이념을 앞장서 선도하고 실천했던 어용 단체였던 것이다.

이러한 ‘녹기연맹’의 어용성과 선동성은 조선 총독부에 의해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고, 기관지 『녹기』는 식민지 한국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휘둘러 이 책 한 권만 지참하면 감시가 철회하기로 악명 높았던 ‘현해탄(玄海灘, 대한해협)’을 헌병과 ‘특고[特別高等警察]’의 검열 없이 건널 수 있었다고 할 정도였다.⁴⁾

이러한 ‘녹기연맹’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잡지 『녹기』의 소개와 해설에 그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본고에서는 ‘녹기연맹’이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지 한국에 펼친 동화정책의 실현을 위해 주도한 사회 운동과 ‘국어(일본어) 상용’ 운동 등의 활동상과 ‘녹기연맹’의 주요 인물들이 잡지 『녹기』에 기술했던 문장을 중심으로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의 양상을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녹기연맹’의 활동상

‘녹기연맹’은 식민지 한국에서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많은 활동을 벌였다. 그 중의 중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일반사회 교화

‘녹기연맹’은 사회 교화를 위해 ‘녹기연구소’를 세우고 경성(京城)을 비롯해 각 지역에 강사를 파견하여 강연회를 개최했다. 특히 소위 지식 계급의 의식 향상을 위해 부민강좌(府民講座), 부인강좌(婦人講座) 등을 열어 도시 교화에 힘쓰

3) 森田芳夫, 「朝鮮文化の今後」, 『綠旗』1940. 1. 7쪽.

경성제대 사학과(조선사) 출신인 모리타 요시오는 ‘녹기연맹’의 ‘녹기일본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국민총력조선연맹’에도 가담하여 기관지의 편집과장으로 활동했고, 일본 제국주의 패망 후 1972년부터 1975년까지 주한일본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했다. 정년으로 대사관 퇴임 후에는 1975년 10월부터 1979년 2월까지 일본 ‘국제교류기금’ 파견 일본어 교수로 한국의 성신여자사범대학(誠信女子師範大學)에서 교편을 잡았다.

4) 임종국,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1979, 52쪽.

는 한편으로 라디오 방송 등 전파를 통한 교화에도 영역을 넓혔다.

2) 생활 향상

‘녹기연맹’은 ‘혼란스러운 현대 생활을 향상시킨다’는 명목으로 ‘국민을 신사(神社)를 중심으로 통일시키기 위해’ 월례 신사 참배, 집회, 녹색 생활 강습회, 가정 생활에 관한 전람회 및 불용품(不用品) 정리하기, 복주머니 만들기, 양모(羊毛) 모으기 등을 벌여 공제회, 보험 특약 등 경제 생활 전반에 대한 절약 운동을 벌였다.

3) 문서 지도

‘녹기연맹’은 1936년 1월부터 기관지 『녹기』를 발행하여 매호에 ‘국체(國體)의 명징(明徵)’, 생활 지도, 식민지 한국의 교화 등을 내걸고 ‘반도 최고의 교화 잡지’임을 자부했다. 또한 20여 종의 팜프렛을 발행해 시국 해설, 일본 국체 해설과 입문서 등 식민지 한국의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진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어 상용’을 강조하여 한국인에게 일본어의 생활화를 강요했다.

4) 중견 인물 양성

‘녹기연맹’은 연맹 발전의 원동력은 중견 인물의 양성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여성 사회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인부(婦人部)를 두고 월례회 및 각종 연례회를 열었고,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부를 두어 월례회 및 연구회 등 각종 행사를 열었다. 또한 여성 교화 단체 ‘세이와여숙(淸和女塾)’를 개설하여 여학교 졸업생을 받아들여 일본식 여성 교화 활동을 벌였다. ‘녹기연맹’의 이러한 활동들은 소위 ‘풀뿌리(草の根)’ 식민 교육을 목적으로 한 것들이었다.

5) 보건 활동

‘녹기연맹’은 부속 시설로 ‘녹기의원’을 설립하여 일반 진료, 건강 상담, 예방 주사, 의료 지식의 전파 등 의료 행위를 했다. 또한 충남 대천(大川) 해수욕장에는 ‘바다의 집[海の家]’을 개설했고, 금강산에 ‘산마을[山の村]’을 세워 계절에 따라 수련회를 열었다.

이러한 ‘녹기연맹’의 식민지 한국에서의 활동에 대해 경성제대 영문과 출신 현영섭(玄永燮, 天野道夫)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녹기연맹은 완전히 일본인이 되어 인류 평화를 위해, 사회 생활의 정의를 위해, 개인의 인격 완성을 위해 일하려는 조선인을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녹기연맹이 제창하는 녹색으로 상징되는 종합 생활 운동은 전 일본 아니 전 세계에 펼쳐지는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우선 조선에서의 내선일체 완성 운동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다. 내선일체는 일본 국가의 사명이며 세계사에 커다란 전환을 가져와 인류가 한마음으로 실현시킬 이상이다. 일본은 세계를 한집[一家]으로 하는 대이상을 추진하고 있다. 녹기연맹은 일본 국민으로서 이 이상의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녹기연맹은 조선인의 참가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조선인도 이 단체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조선의 미래의 새로운 시대를 짊어질 젊은 세대가 이 운동의 본질을 깨달아 솔선하여 참가하기를 기대한다.⁵⁾

현영섭은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녹기연맹’의 열성적인 한국인 회원으로서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의 실현에 최후까지 광분한 인물이다.

3. 『녹기』와 ‘국어 상용’

일본 제국주의는 식민지 한국의 지배 이념인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한국인에게 소위 ‘국어’의 보급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기회 있을 때마다 ‘국어 상용(常用)’을 강요했다. 이것은 일본어를 한국인에게 확산 시켜 한국어를 폐지하려는 문화 파괴 행위였다. 언어의 일반성에 의해 일본 문화의 원천은 일본어이므로 일본어를 ‘국어’로 강요하고 한국어를 폐지하는 것은 곧 한국 문화와 한민족의 민족혼을 말살하는 동화 정책이었던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이러한 식민지 한국에 대한 교육 정책은 일찍부터 마각을

5) 玄永燮, 「綠旗聯盟の朝鮮に於ける役割」, 『綠旗』1938. 2. 21쪽.

현영섭은 대학 졸업 후 상해의 ‘남화한인동맹(南華韓人同盟)’이라는 아나키스트 단체에 가입해 일본에 건너가 아나키즘 운동에 참가하다 1935년 도쿄에서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조선총독부 중추원(中樞院) 참의(參議)였던 아버지(玄樞)의 보증으로 1936년 출옥한 후 아마노 미치오(天野道夫)로 ‘창씨개명(創氏改名)’하고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 실현에 광분하다 해방 직후 생명의 위협을 느껴 일본으로 밀항했다. 한때 일본 오키나와 현(沖繩縣) 미군 기지에서 북한 관계 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다가, 말년에는 사이타마 현(埼玉縣) 오미야 시(大宮市)에서 영어 학원을 경영했다 한다.

드러내 1911년 8월에 나온 ‘조선 교육령(칙령 제229호)’에 잘 드러나 있다.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 교육의 방침을 정한(제1조에 명시하고 있다) ‘조선 교육령’은 제2조에서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따라 충량(忠良)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의(本義)로 한다’고 규정하여 일본 제국주의 소위 ‘교육칙어(1890년 제정)’에 바탕을 둔 ‘친황주의’와 ‘황국신민’ 육성을 한국인 교육의 강령으로 내세웠다. 제4조에서는 한국에서의 교육을 ‘보통 교육, 실업 교육, 전문 교육’으로 나누고, ‘보통 교육은 지식과 기능 특히 국민다운 성격을 함양하고 국어의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⁶⁾ 또한 ‘조선 교육령’을 공포하며 당시의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도 ‘국어 상용’을 강조하는 유고(諭告)를 발표했다.

제국 교육의大本(大本)은 일찍이 교육에 관한 칙어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체로부터 나오고 역사가 증명하여 확고한 불변의 것이다. 조선 교육의 본의 또한 여기에 있고 ……… 교육은 특히 덕성의 함양과 국어의 보급에 힘을 기울여 제국 신민의 자질과 품성을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⁷⁾

결국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한국 교육의 목표는 ‘국어를 통한 황국신민 양성’이었던 것이다. 이후 ‘조선 교육령’은 네 차례 개정되었고(1922, 1938, 1943, 1945), 그때마다 ‘황국신민화’와 ‘내선일체’가 강화되어 갔다. 소위 ‘국어 상용’의 강화는 그대로 ‘황국신민화’와 ‘내선일체의 필수 요소였던 것이다. ‘총동원 통치 시대’의 조선 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도 이 점은 마찬가지였다.

국어는 국민의 사상, 정신과 한 몸으로 떼어낼 수가 없다. 국어를 떠난 일본 문화는 없다. 반도인(조선인-인용자)의 진정한 황국신민화는 반도 민중이 국어를 해독하고 사랑하도록 해야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국어의 보급이야말로 내선일체의 절대적인 요소이다.⁸⁾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 교육령’에 따라 기회 있을 때마다 ‘국어는 국민 정신의 원천’이라는 미명으로, 일본어의 학습을 강요하는 ‘국어 상용령(常用令)’을 내놓았다. 이 ‘국어 상용령’은 교육 기관은 물론 관공서, 언론 기관, 일반 민중에 이르기까지 전 민족적으로 강요되었다. 이것은 이윽고 한국어의 폐지로 연결되어

6) 한국학 문헌 연구소, 『조선총독부 관보』 5. 아세아문화사, 1985. 9~10쪽.

7) 朝鮮總督府編, 『施政二十五年史』, 朝鮮總督府, 1935, 168면.

8) 『京城日報』, 1942. 4. 12.

선택 과목이었던 한국어 과목이 1941년 3월부터는 국민 학교에서 완전히 모습을 감추었고, 1943년에는 모든 학교에서 폐지되었다. 이리하여 식민지 한국에서 한국어는 금지어(禁止語)가 되어버리는 운명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한국 지배 방침에 따라 ‘녹기연맹’이 그 실천에 앞장 선 것은 물론이다. ‘녹기연맹’은 조선 총독부의 ‘국어 보급’과 ‘국어 상용’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1941년도 ‘녹기연맹 사업 계획’에서 ‘내선일체는 일본 국체 정신에 기반을 둔다’는 방침을 정하여⁹⁾, 일본 정신을 고양(高揚)하기 위해 각지에 강사를 파견하여 강연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 연맹 내의 각부(各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국어 보급 운동에 필요한 교수법 연구, ‘반도인’에의 국어 연성 교수법 연구, ‘반도’ 문화 연구자를 ‘국어’로 소개했다. 또한 ‘내선일체의 문화적 완성에 기여하기 위해’ 『녹기』가 ‘반도 작가’의 국어 작품 발표 지면을 제공할 것 등을 선전했다.

‘녹기연맹’은 기관지 『녹기』에도 ‘국어 보급’ 특집을 내어 조선 총독부의 정책을 선도했다. 『녹기』는 1942년 3월호에 ‘국어 상용의 이념’이란 특집을 내어 각급 학교의 교수, 교사들을 중심으로 ‘국어 보급’의 방법과 실천을 논했다.

같은 호에는 한국인 문학자의 ‘국어 작품 창작’ 특집을 내어 이효석, 한설야, 마키 히로시(牧洋, 李錫薰), 정인택, 허준, 미야하라 소이치(宮原惣一, 金聖珉)가 ‘국어 작품 창작의 신념’을 밝히고 있다.

1942년 4월호에는 ‘대동아공영권과 일본어의 진로’라는 특집을 실어 ‘팔굉일우(八紘一宇)¹⁰⁾의 대의(大義)’에 따라 ‘대동아공영권’ 내에서 일본어가 ‘공용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1942년 6월호의 특집은 ‘국어 생활의 철저’로 구성하여, ‘일상 생활에서의 국

9) 「昭和16年度に於ける緑旗聯盟の事業計畫」, 『緑旗』 1941. 3. 190쪽.

10) ‘팔굉일우(八紘一宇)’란 ‘온 천하가 하나의 집’이라는 의미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주의를 대표하는 사상이다. ‘팔굉’은 중국의 『회남자(淮南子)』 「추형(墜形)」의 ‘八沢之外有八紘’과 『열자(列子)』 「탕문(湯問)」의 ‘八紘九野之水’가 원전으로, 『일본서기(日本書紀)』의 ‘掩八紘而為宇不亦可乎’(神武天皇即位前紀己未年三月丁卯条) 부분을 1914년 ‘국주회(国柱会)’를 창립하고 ‘국체학(国体学)’을 제창한 일본 ‘일련종(日蓮宗)’의 다나카 치가쿠(田中智学, 1861~1939)가 ‘天祖(天照大神-인용자)は之を授けて「天壤無窮」と訣し、国祖(神武天皇-인용자)は之を伝へて「八紘一宇」と宣す’(「宣言-日本国体の研究を發表するに就いて」 国柱会日刊紙 『天業民報』 1920. 11. 3. 뒤에 책으로 출간. 智学田中巴之助, 『日本国体の研究』, 天業民報社, 1922)로 확대 날조 해석하여 주장한 데에서 나왔다. 이것이 확산되어 일본 제국주의는 1937년 중일전쟁과 중국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해 내각·내무성·문부성 이름으로 『日本精神の発揚·八紘一宇の精神』(国民精神総動員 資料 第4輯)이란 책자를 발행하여 ‘팔굉일우’를 내세웠다. 이것은 다시 1940년 7월 제2차 고노에 [近衛文磨] 내각에서 ‘대동아 신질서’를 ‘기본 국책 요강’으로 채택하고 ‘황국(皇國)의 국시는 팔굉을 일우로 하는 건국의 대정신이 기본’이라 선언하여 ‘대동아공영권’ 구상으로 구체화되었다. 이윽고 도조 히데키[東条英機] 내각은 1941년 12월 8일 태평양전쟁으로 치달았다.

어 실천’을 논했으며, 1942년 7월호에는 식민지 한국에 징병제 실시 결정에 호응하여 ‘국어 보급 운동’이란 특집을 내, ‘국민 정신’, ‘일본 정신’, ‘팔굉일우’, ‘대동아공영권’, ‘대화혼(大和魂)’ 등 일본 제국주의 선전 문구를 남발하며 ‘국어 상용’의 정당성을 외쳐대고 있다.

이러한 ‘국어 상용’에 대한 『녹기』에 나타난 발언들을 살펴본다. 경성제대 사학과 교수 마쓰모토 시게히코(松本重彦)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어는 국가의 기본이다. 이것이 있음으로써 국권(國權)이 신장되고, 국세(國勢)가 번영할 수 있다. 근본을 기르지 않고 가치를 뺏어 잃을 우거지게 하는 것은 어떠한 세상에서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실로 국가를 사랑하는 자는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풍부하게 하는 일부터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풍부하게 하지 않으면 국가의 발전은 있을 수 없고, 국민의 팽창도 있을 수 없다. …………… 황국신민은 우리의 자랑이며 즐거움이다. 이러한 자랑스러움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황국어(皇國語)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풍부하게 사용하도록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안 된다. 황국어가 바르게 되고 풍부해지면 이외의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다.¹¹⁾

마쓰모토 시게히코는 더 나아가 식민지 한국에 이주한 일본인들이 사용하는 ‘국어’ 속에 ‘조선어’가 섞여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올바른 ‘국어 상용’을 위해 이것을 일본어로 순화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마쓰모토 시게히코는 일본 제국주의 ‘황국사관(皇國史觀)’ 학자로 ‘야마토숙(大和塾)’에서 일본 제국주의 소위 ‘국체’를 강의하며, 한국인에게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를 강요했던 전형적인 식민주의자였다. ‘야마토숙’은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전향시키고 교화시킨다는 목적으로 1940년 12월 설립되었으며, 경성보호관찰소장이며 사상 검사였던 가와사키 유조(川崎祐三)가 숙장(塾長)이었다.

한편 ‘녹기일본문화연구소’ 연구원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조선인은 일본인이므로 그 언어는 아무리 계통을 달리 하더라도 일본어권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일본어와 조선어의 언어학적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 ‘일본’이 발전했기 때문에 ‘일본어’의 개념에 포용된 것이다. 사쓰마(薩摩) 사투리나 기타구니(北國) 사투리는 도쿄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는 발음과 어휘를 가지고 있지만 일본어에 포함되었던 말이고, 조선어는 새롭게 일본어권에 들어온 말이다. 이런 측면에서 국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조선어는 일본

11) 松本重彦, 「國語の問題」, 『綠旗』 1938. 7. 13쪽.

어의 지방어이다. 이 지방어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의 생활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가 공통어를 가지려 노력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아니 한걸음 더 나아가 한 나라의 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표준어를 명확히 정해, 그 표준어에 바탕을 둔 문화 보급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선어를 지방어로 인정은 하더라도, 국어를 더욱더 보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더구나 국어로 표현되고 있는 일본 문화가 가장 우수한 문화라는 것, 국어를 습득해야만 세계 문화를 배울 수 있다는 것, 국어의 사용 범위가 동아시아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조선인은 국어를 철저히 익히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다.¹²⁾

경성제대에서 조선사를 전공한 모리타 요시오의 신념은 ‘조선은 일본의 일부’라는 철저한 영토욕이었다. 그에게 한국인을 교화시키기 위해 ‘국어’의 강요는 필수적인 요소였던 것이다.

한국인으로 ‘녹기연맹’에서 ‘녹기일본문화연구’ 연구원으로 열성적인 활동을 전개했던 현영섭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본은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 동양과 서양의 최선의 것을 포섭하여, 이윽고 전 세계를 선도할 운명을 지니고 있다. 지금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나라는 영국이지만, 영국을 대신하여 세계를 이끌어갈 운명을 가진 나라는 일본이다……… 우리 조선인은 일본인이 되어 일본 문화를 세계에 보급할 중대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선어 문제는 작은 가지에 불과하다는 태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을 통감한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조선어 폐지를 주장했다. 조선인이 만주에 가서 살더라도 국어를 상용해야 내선일체의 이상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혹은 조선인이 내지인과 평등하게 정치 경제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선인은 조선어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조선인이 국어로 사물을 생각할 때야말로 조선인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¹³⁾

현영섭에게 한국인의 목표는 일본인이 되는 것이므로 ‘조선어’는 한갓 방해물에 불과했던 것이다. 경성제대 영문과를 졸업한 그는 학생 시절 영국인 교수(Bryth)로부터 ‘영어의 천재’라는 말을 들었다 한다.¹⁴⁾ 그러한 그가 보이는 일본어 편향은 일본인이 되려는 지향 의식의 발로이며 한국어에 대한 멸시 감정이라고 볼 수 있다.

12) 森田芳夫, 「朝鮮文化の今後」, 『綠旗』1940. 1. 18~19쪽.

13) 玄永燮, 「世界の歸一と言語の統制」, 『綠旗』1937. 6. 42~43쪽.

14) 조용만, 『30년대의 문화예술인들』, 범양사 출판부, 1988. 24쪽.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침략에서 언어 문제는 기본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서 의사 소통 없이는 지배가 불가능하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민족을 지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일본 제국주의는 처음부터 한국어 학습의 의욕이 없었다. 그러므로 한국인에게 일본어를 강요하는 것은 필연이었다. 일본 제국주의는 한걸음 더 나아가 소위 ‘대동아공영권’의 공용어로 일본어를 강요하는 야만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녹기연맹’의 기관지 『녹기』도 초창기에는 일본인 중심의 필진으로 지면을 메웠으나, ‘국어 특집’ 이후부터는 친일 한국인이 쓰는 글의 분야도 다양해져, ‘내선일체’를 논하는 논문뿐만 아니라 소설, 창작, 시, 수필, 주장, 좌담회 등 전 부문에 걸친 문장들이 등장하게 된다. 1944년 3월 제호(題號)를 『홍아문화』로 개제(改題)한 이후에도 이러한 활동은 계속되었다. ‘녹기연맹’의 ‘국어 상용’ 강요는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라는 일본 제국주의 한국 지배 정책을 충실히 실천하고 선도한 침략과 지배의 ‘풀뿌리’ 식민 활동의 일환이었다.

4.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한국 지배 기본 정책은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였다.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는 동화정책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으로 이 둘은 혼연일체(渾然一體)를 이룬다. ‘황국신민화’가 주로 도덕적 규범으로 정신면을 강조하여 한국인의 충성을 강요한 것이라면, ‘내선일체’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동조동근(同祖同根)’이라는 미명으로 역사적인 혈연 관계를 합리화하여 한국 지배를 정당화한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면, ‘내선일체’란 ‘선조대(先祖代)의 혈연적 연계성에 기반을 둔 필연적이고도 발전적인 환원’이며, ‘황국신민화’란 ‘조선 민족 이천 오백만 전부가 국체의 본의(本義)를 투철히 하여 철저하게 황국신민적 수양 연성(修養鍊成)을 실천 궁행하는 것’¹⁵⁾이라고 선전했다. ‘내선일체’가 역사적 정당성을 날조한 지배 논리라면, ‘황국신민화’는 도덕적·정신적 지배 논리였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지배 이데올로기는 ‘천황 귀일’로 완결된다고 했다. 그러나 ‘내선일체’는 ‘동조동근’의 이면에 순혈론을 내포해 일본 민족의 우월성을 주장하며 한국인에 대한 ‘차별’의 논리로 작용했고, ‘황국신민화’는 ‘팔굉일우의 현현(顯現)’으로 무한 확대를 계속하며 자기 방어와 자기 폐쇄성을 내포한 ‘국체(國體)의 명징(明徵)’¹⁶⁾을 내세워 이민족에 대한 배타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

15) 朝鮮總督府, 『新しき朝鮮』, 朝鮮總督府, 1944: 15~25쪽.

다.

그리고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의 논리는 원인과 결과의 인과 관계와 상호 보완의 대응 관계를 구축하여 형식과 내용을 형성해갔다. 일본 제국주의는 ‘내선일체’를 일러, 한국인이 일본인과 동등하게 될 수 있는 날은 ‘조선 동포 스스로가 완전한 황국신민이 되는 그날부터’라고 했다.¹⁷⁾ 따라서 한국인이 ‘완전한 황국신민’이 되지 않으면 ‘내선일체’는 없는 것이 된다. ‘내선일체’를 구실로 ‘황국신민화’를 무한정 강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의 순환 논리는 궁극적으로 한국인에게 ‘황국신민’의 의무는 가중되어 가는 대신, 권리는 부여하지 않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의 허위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 소위 ‘국체’는 ‘대일본 제국은 만세일계(萬歲一系)의 천황이 황조(皇祖)의 신칙을 받들어 영원히 이를 통치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만고불역의 국체이다’로 되어 있다.¹⁸⁾ 이 ‘국체’ 의식은 1889년 제정의 대일본제국 헌법 제 1조에도 명시되어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한다’로 되어 있고, 제 3조에는 ‘천황은 신성하여 범할 수 없다’는 신격 규정을 두었다. 천황은 법적으로도 소위 ‘살아 있는 신[現人神]’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국체’ 의식은 일본의 건국 신화 『고사기(古事記)』에서 유래한 ‘신국(神國) 사상’의 ‘천황주의’를 날조 윤색한 것이나, 이것은 그대로 일본 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일본 민족 우월감으로 합리화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본 민족 우월성의 날조는 그대로 식민지 한국에 적용되어 한국인이 우수한 민족인 일본인에 ‘동화’되어야 한다는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의 논리가 되어 한국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시켰다.

‘녹기연맹’ 창립자 쓰다 사카에는 일본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황공하옵게도 역대 천황은 아마테라스오미카미(天照大神)의 신칙에 따라 오로

16) ‘국체의 명징’은 1935년 헌법 학자 미노베 다쓰키치(美農部達吉)의 ‘천황기관설(天皇機關說)’을 배경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국수주의 운동이다. ‘천황기관설’은 미노베가 국가법인설을 채용하여 천황과 국가의 위상을 설정하면서 통치권을 가지는 것은 법인인 국가이고, ‘천황은 국가 최고 기관’에 속하므로 헌법에 따라 통치권을 행사한다고 보아, 천황이 헌법에 종속된다고 주장한 학설이다. 이것은 천황의 절대 권력을 규정한 일본 제국주의의 제국헌법 하에서도 그때까지 정설로 통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1935년 우에스기 신키치(上杉慎吉)를 비롯해 국수주의자와 군부가 ‘천황주권설’을 들고 나와 미노베의 학설은 일본의 ‘국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공격하였다. 이것은 당시의 오키다 게이스케(岡田啓介) 내각을 뒤흔들며, 정부가 공식적인 정의를 내린 것이 1937년 문부성이 발행한 『국체의 본의』이다.

17) 朝鮮總督府, 『新しき朝鮮』, 朝鮮總督府, 1944, 82쪽.

18) 文部省, 『国体の本義』, 文部省, 1937, 9쪽.

지 신민(臣民)의 평안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충량(忠良)한 신민은 그 대어심(大御心)을 나의 마음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이야말로 신(神)의 나라인 것입니다. 불국토(佛國土)를 만들고 천국이 다가온다 해도 이 일본 정신을 펼치는 이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나라는 세계의 어디에도 없습니다.¹⁹⁾

쓰다 사카에는 학창 시절부터 다나카 치가쿠(田中智学)의 ‘천주회(天柱會)’ 활동에 참여하였고, 경성제대 예과 교수로 부임한 뒤 이것을 이식하여 ‘녹기연맹’을 조직했다. 그는 ‘국주회’의 ‘천업청년단(天業靑年團)’의 활동과 사토미 기시오(里見岸雄, 田中智学의 3남)가 제창한 ‘국체과학(國體科學)’을 식민지 한국에서 실천하기 위해 ‘녹기연맹’을 설립했던 것이다(쓰다 사카에의 전공은 화학이다).

쓰다 가타시는 형인 사카에가 1942년 3월 도쿄로 이주하자, ‘녹기연맹’을 이어 받은 인물이다. 그는 ‘내선일체’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선(內鮮) 관계는 우선 내선이 융화하는 협동 관계로부터 내선일체라는 일체(一體) 관계의 완성으로 나갈 수 있다. 진정한 내선일체의 완성이야말로 동아 협동체의 완성을 의미하는 동아의 일체성을 성립시키는 불가결한 문제이다 실로 반도의 내선일체 완성은 동아 블록 안의 유기화의 최고요 최종적인 단계를 완성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의 완성을 현대 일본이 이루지 못한다면 동아 협동체 건설은 불가능할 것이고, 동아 협동체는 근본으로부터 동요하고 붕괴될 것이다. 만약 일억의 일본 국민이 내선일체를 완성하지 못한다면 동아 공동체는 일본인의 손에 붕괴되는 날이 올 것이다 진정한 내선일체는 내지에서 정치 경제 기타 여러 문화가 진정한 황도(皇道) 위에 선 일본 문화 본래의 모습으로 복귀하는 대개혁이 진행되는 그 흐름을 따라 반도가 무조건 귀일, 동화하는 것을 의미한다.²⁰⁾

쓰다 가타시는 경성제대 철학과 출신이다. 이 쓰다 가타시에 대해 1930년대 식민지 한국의 ‘조선문인협회’에서 활동했던 일본인 작가 다나카 히데미쓰(田中英光)는 소설 『취한 배(酔いどれ船)』에서 다음과 같이 풍자하고 있다.

‘쓰다 지로(都田二郎)는 전의 대학 총장, 지금은 도쿄대학의 총장이 된 아베 노세(安部能誓)의 심복으로 불리며 그의 밑에서 죽 학생감을 해운 쓰다 이치로(都田一郎)의 친동생이다. 그는 불량 소년으로부터 문학 청년으로 자라 최후에

19) 津田榮, 「神國日本」, 『綠旗』1939. 6. 13쪽.

20) 津田剛, 「東亞協同體の建設と內鮮一體の完成」, 『綠旗』1939. 1. 8~11쪽.

는 모 사립대학의 철학과를 나왔다. 그후 형이 있는 경성에 와서 저널리즘에 논문 등을 발표하는 중에 언제랄 것도 없이 미나미(南)총독의 눈에 들어 총독부의 후원을 받으며 청인초연맹(靑人草聯盟)이라는 사상 선도 단체를 주도하게 되었다. 그 연맹으로부터는 두 세 종류의 잡지가 나오고 있고 그는 조선의 저널리즘에 막강한 세력을 휘두르고 있다 …………… 이 빈약한 조선 문단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은 일찍이 터줏대감이라고 불린 작가 이광수도 아니고, 수재로 유명한 유진오도 아니다. 대학 교수 가라시마(唐島) 박사와 청인초연맹의 쓰다 지로와 경성일보(京城日報)의 다무라(田村) 학예부장 세 사람이었다. 그중에서도 다무라는 술을 좋아하고 고생을 한 사람으로 정치적 야심은 전혀 없다. 다만 그는 고풍스런 인정가(人情家)에 충군 애국주의자였으므로 그런 그의 선량함을 다른 두 사람이 매사에 이용하여 그를 표면에 내세우고 자신들은 배후에서 흑막(黑幕)이 되어 조선의 저널리즘을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조종하며 군부에는 충성을 바치고,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권력에 빌붙으려 하는 것이다.²¹⁾

이 인용에서 쓰다 지로(都田二郎)가 쓰다 가타시(津田剛), 아베 노세(安部能誓)가 경성제대 법문학부 교수와 문부대신(文部大臣) 등을 역임한 아베 요시시게(安部能成), 쓰다 이치로(都田一郎)가 가타시의 형 사카에(津田栄), 가라시마(唐島) 박사가 경성제대 교수(지나문학) 가라시마 다케시(辛島驍), 다무라(田村)가 『경성일보(京城日報)』 논설위원 겸 학예부장 데라다 아키라(寺田英)를 각각 풍자하고 있고, ‘청인초연맹(靑人草聯盟)’은 ‘녹기연맹’을 바꾼 이름이다.

여기에는 식민지 한국에 몰려들어온 일본 제국주의의 삼 요소 ‘미코시[神輿], 관리, 무법자’²²⁾들이 다 갖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쓰다 사카에든 가타시든 식민지 한국에 몰려들어온 삼류 문화인 떨거지로, 일본 제국주의라는 힘의 논리를 배경으로 거침없이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라는 ‘동화’의 논리를 떠벌렸던 것이다.

현영섭은 일찍부터 ‘녹기연맹’에 가입해 ‘녹기일본문화연구소 연구원’이 되어 열성적으로 활동했다. 그는 ‘조선 청년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본 정신, 일본 국체 정신-이것이야말로 다가올 시대의 으뜸되는 화두다-은 결코 파시즘이 아니다. 조선인은 조선인의 결점을 100% 청산할 때 제국은 일본 정신의 지도자적 지위에 설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소한 것에 불과한 조선적인 것을 버리고 청산하는 일이다. 조선어와 조선옷, 조선의 가옥, 형식적인 조상 숭배, 조선 역사 등을 버려 정신적으로 일본인적인 감정에 침윤되어야 한다.²³⁾

21) 田中英光, 『酔いどれ船』, 『田中英光全集』 第2巻, 芳賀書店, 1970. 236~237쪽, 244쪽.

22) ‘미코시’는 신을 모신 가마로 천황의 권위에 빌붙은 무리들을 의미하고, ‘관리’는 권력, ‘무법자’는 폭력을 의미한다(丸山真男,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 未来社, 1988, 129쪽).

현영섭은 한국 민족의 해소를 통해 ‘내선일체’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내선일체’야말로 ‘인간의 행복’으로 몽상했다.

내선일체는 자신과 세계의 행복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우리의 사상을 만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내선일체는 단순히 우리의 이상을 만족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살리는 것이기도 하다. 내선일체는 예술의 세계이기도 하다. 그것은 단지 도덕적 당위가 아니라, 우리의 세계를 한층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현영섭은 ‘내선일체’ 논리를 ‘세계를 아름답게 하는’ 예술론으로까지 비약시키고 있다. 현영섭은 1938년 『조선인이 나아갈 길(朝鮮人の進むべき道)』이라는 책을 썼다. 이 책에서 그는 “한일병합 이전의 조선은 지옥이었다 해도 좋을 것이다. 오랜 동안 중국의 지배와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지배 계급 때문에 민중의 생활은 철저히 유린당해 민중은 살아 있음을 저주했다”²⁴⁾며 철저한 한국 역사 부정의 태도를 보였다. 그리하여 그는 ‘일본 국민과 천황 신앙의 절대성’을 논하며, “일본 천황은 인류의 절대 탐구의 표현이었다. 천황은 일본인만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인류가 숭배해야 할 대상이다. 공산주의자는 스탈린 만세를 인류에게 외친다. 우리 일본인은 전 인류에게 ‘천황 폐하 만세’를 외치라고 권해야 한다”²⁵⁾고 말해 천황을 절대 신앙의 대상으로 선전했다.

모리타 요시오는 ‘조선 문화의 금후’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선일체는 조선의 비약이며 또한 일본의 비약이다. 종래의 일본관(日本觀)의 수정은 동시에 일본 문화가 세계로 진군(進軍)하는 기지(基地)가 된다.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생각하고 조선어를 일본어로 생각할 수 있는 일본, 거기에 조선인을 진정한 황국신민답게 만들어 국어생활로 통일시킬 수 있을 때, 처음으로 아시아 신질서 운동은 가능해지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일본 문화 건설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조선 문화를 포용하여 순화시키고 조선의 역사를 일본의 역사권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일본 문화인이 될 때, 처음으로 세계 문화의 지도자의 권리를 가지고 새로운 세계사를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팔굉일우’의 일본 문화 진로가 처음으로 구체성을 가져 내선일체 운동의 세계적 의의가 성립되는 것이다.²⁶⁾

23) 玄永燮, 「朝鮮人青年の任務」, 『綠旗』1937. 9. 7쪽.

24) 玄永燮, 「朝鮮人の進むべき道」, 綠旗聯盟, 1938. 4~5쪽.

25) 위의 책. 129~130쪽.

26) 森田芳夫, 「朝鮮文化の今後」, 『綠旗』, 1940. 1. 21쪽.

모리타 요시오는 ‘내선일체’를 일본 제국주의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건설 기지’로 위치시켜 ‘세계사적 세계성’으로 파악하고 있다.

모리타 요시오는 1939년 『국사(国史)와 조선』이라는 책을 썼다. 이 책에서 그는 한일병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국병합은 무혈(無血)의 병합이었다. 일본의 건국 신화에 오쿠니누시(大国主命)가 아마테라스오미카미(天照大神)에게 나라를 양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온다. 몇 번의 교섭 후에 아시하라노나카쓰쿠니(葦原中国, 일본-인용자)는 ‘명령에 따라 헌상한다’며, 오쿠니누시는 은퇴하고 백성과 국토를 니니기노미코토(瓊瓊杵尊)에게 양도한다. 한국병합도 인류 역사에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질 것이다.²⁷⁾

모리타는 늑약(勒約)으로 맺은 한일병합을 일본 『고사기(古事記)』 건국 신화의 ‘나라 물려주기’ 정도로 미화하고 합리화하여 자화자찬에 빠져 있다. 경성제대 조선사학과 출신 모리타 요시오의 사이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다.

한편 『녹기』 1939년 10월호에는 ‘일진회(一進會)’ 회장이었으며, ‘합방청원서’를 제출했던 이용구(李容九)의 아들 이석규(李碩奎, 大東国男)²⁸⁾의 발언이 실려 있다.

동해의 일본은 딴 나라가 아니다. 우리의 조상이 건너가 살았던 곳이다. 현재의 한국은 본래의 면목(面目)을 대부분 상실하여 지나화(支那化)된 부분이 많다. 진정한 우리의 정신이나 문화는 바다 건너 섬나라 일본에 건너가 훌륭하게 성숙되고 발전했다. 이러한 좋은 것들을 받아들여 키우는 것은 결코 억지가 아니라 자연의 섭리인 것이다.²⁹⁾

이 부분은 이석규가 이용구의 발언을 인용하여 발언한 것이다. 이용구를 ‘내선일체 운동의 선구자’로 그리고 있다. ‘매국노’ 이용구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27) 森田芳夫, 『国史と朝鮮』, 綠旗聯盟, 1939. 127쪽.

28) 이석규는 창씨명을 다루이 도키치(樽井藤吉)가 지은 ‘대동합방론(大東合邦論)’의 영향을 받은 이용구의 뜻을 기려 다이토 구니오(大東国男)로 지었다. 1912년 이용구가 죽자 일본 나고야(名古屋)에서 자랐다. 대륙낭인 우치다 료헤이(内田良平) 등의 후원으로 1938년 ‘일진회’의 후신 ‘대동일진회’의 조직에 참가하여 ‘내선일체’ 활동을 전개했고, ‘대동숙(大東塾)’, ‘일한회담 촉진회’ 등에서 활동했다. 1960년 『李容九の生涯』(時事通信社)를 출판하여 아버지의 ‘한일합방’ 활동을 옹호했다. 1989년 일본에서 사망했다.

29) 李碩奎, 「内鮮一體運動の先驅者-父·李容九を語る」, 『綠旗』1939. 10. 44쪽.

부분이다.

1931년의 만주사변과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본 제국주의는 ‘동아신질서’의 일환으로 ‘일·지·만일체(日支滿一體)’를 부르짖었다. 이에 대해 쓰다 다카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새로 일어나는 것, 그것은 우리 일본을 중핵으로 하고 만주국을 일덕일심(一德一心)의 동포로, 신생 지나(支那)를 맹방으로 커다란 원을 그어 육역의 창생(蒼生)을 그 산하에 포함하는 동아 협동체이다. 거기에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항상 선두를 달려온 지나 대륙의 빛나는 문명이 있다. 또한 이윽고 전 세계를 통일할 천부의 사명을 띠고 삼천년 동안 면면히 그 이상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일본이 있다.³⁰⁾

또한 쓰다 가타시는 1940년 7월의 일본 제국주의 ‘대동아 신질서’, 소위 ‘대동아공영권’ 구상을 선도하여 다음과 같은 발언도 하고 있다.

대체로 세계에는 다섯 개의 문화적인 흐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도 문화, 다른 하나는 지나에 원천을 둔 문화, 또 하나는 우리의 황도 문화이고, 여기에 헤브라이, 그리스에 바탕을 둔 서양 문화입니다. 우리 일본은 동양의 대륙 문화를 모두 자기 것으로 하였고, 지금은 서양 문명을 소화하여 완성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완성을 향해 제일보를 내딛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 우리 문화가 장래 인류의 지도 문화가 될 수 있는 본질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 세계 문화의 동향을 살펴보면 아메리카의 데모크라시보다는 팔굉일우의 황도가 인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일본은 세계 신질서를 기원 이천 육백년대에 완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책임을 세계 인류에 가지고 있습니다. 동아 신질서는 그것의 제일보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원 이천 육백년대에도 세계 육십 여개국을 없애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상에는 우리의 천황이 이끄는 인류일가(人類一家), 팔굉일우의 대정신에 의해 통일되어 인류는 처음이자 최후의 평화에 도달할 것입니다.³¹⁾

쓰다 가타시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 전쟁 논리인 ‘팔굉일우’에 의해 결국 ‘대동아공영권’은 다음과 같이 완성된다고 보았다.

30) 津田剛, 「世界政勢の急展開と日本の立場」, 『綠旗』1939. 10. 8쪽.

31) 津田剛, 「皇道文化と世界新秩序」, 『綠旗』1940. 4. 26~27쪽.

아시아 십억의 백성을 배경으로 하는 대동아공영권의 완성은 일본으로 하여금 화(和)의 방식으로 세계의 편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 경우 아시아 공영권이 동아 영원의 평화를 확보하려는 대어심(大御心)의 발현에 의해, 받들지 않는 자들을 받들게 하려는 황군의 실력 발동으로 대동아공영권 구상이 가능해진 것과 같이, 이십억 인류에게 있을 자리를 얻게 하려는 대어심은 인류 사회의 구체적 계획을 실천하고 있는 황군의 실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마치 조국(肇國)의 태고에 천손(天孫)이 천신(天神)을 이끌고 휴가(向日)에 강림한 것과 같이 대어심은 세계의 제국(帝國), 왕국, 민주국,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의 여러 나라 각자의 문화 방식에 맞게 전 세계를 배분할 것이다.³²⁾

결국 ‘녹기연맹’의 목적은 ‘국어 상용’ 운동을 기반으로 식민지 한국에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를 펼쳐 식민지 한국을 ‘대동아공영권’의 ‘병참기지’로 재편하여, 일본 제국주의 ‘팍팍일우’의 실현을 위해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를 침략한다는 ‘침략’과 ‘지배’에 있었던 것이다.

5. 맺음말

‘녹기연맹’은 경성제대 예과 교수 쓰다 사카에가 일본 일련종 다나카 치가쿠의 ‘국주회’를 식민지 한국에 이식한 민간 단체였다. 그러나 그 종교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이주한 일본인이 식민지 한국 사회를 교화하여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를 실현시킨다는 ‘풀뿌리’ 침략에 앞장서 식민지 지배 권력의 첨병 역할과 여용성을 철저히 보여준 악질적 단체였다.

특히 ‘녹기연맹’은 식민지 한국 지배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일본어의 보급이라고 보아 ‘국어 상용’을 강요하고, 한국 지배의 미래 세대 담당자로서 한국 이주 일본인 청년층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깨달아, 식민지 한국 지배의 ‘풀뿌리’ 세대 육성을 위해 학생들을 중심으로 ‘황국신민 연성’의 청년부 활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했다. 이러한 다면적인 사회 활동은 식민지 권력의 지배 방침의 실천자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침략 전쟁의 확대를 시국이 긴박해졌을 때에는 선도적인 역할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녹기연맹’ 활동의 성격은 식민지 한국 이주의 식민이 단순한 생활인으로서가 아니라, 한국인에 대한 철저한 ‘풀뿌리’ 침략 세력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 전쟁이 확대됨에 따라 ‘녹기연맹’은 사회 교화 단체의 역

32) 津田剛, 「日本の世界圖像の構造—八紘—宇文化論序說」, 『綠旗』1942. 10. 14쪽.

할에 그치지 않고, 일본 제국주의 및 식민지 지배 권력의 선전 역할도 서슴지 않아 갈수록 그 위상이 높아져 갔다. 이러한 ‘녹기연맹’의 특징은 그 기관지 『녹기』에도 그대로 나타나,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사상 통제와 언론 통제 일환으로 1920년대 이후 나타났던 한국인의 잡지와 언론들의 폐간이 속출하고 검열이 강화된 데 비해, 『녹기』는 오히려 필진들이 대학 교수, 교사, 관료, 법조인, ‘내지(內地)’의 일본인 등 더욱 다양해지고 발언들이 강력해지는 데에서도 어용성과 선도성이 드러난다.

‘녹기연맹’은 출발의 원천이 종교성이었으나, 그 표방한 강령에서 드러나듯 일본 제국주의 ‘국체’ 의식을 식민지 한국에 확산시켜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의 실현을 위해 최후까지 일본 제국주의 나팔수 역할을 아끼지 않은 단체였다. 여기에 사회 교화 단체 ‘녹기연맹’의 사이비성이 숨어 있다.

【참고문헌】

- 임종국,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1979, 52쪽.
한국학 문헌 연구소, 『조선총독부 관보』 5. 아세아문화사, 1985. 9~10쪽.
조용만, 『30년대의 문화예술인들』, 범양사 출판부, 1988. 24쪽.
『綠旗』, 創刊号, 1936. 1. 1쪽. 『綠旗』 1937. 6. 42~43쪽.
『綠旗』 1937. 9. 7쪽. 『綠旗』 1938. 2. 21쪽.
『綠旗』 1938. 7. 13쪽. 『綠旗』 1939. 6. 13쪽.
『綠旗』 1939. 10. 8쪽. 44쪽. 『綠旗』 1940. 1. 7쪽. 18~19쪽. 21쪽.
『綠旗』 1940. 4. 26~27쪽. 『綠旗』 1940. 10. 120쪽.
『綠旗』 1941. 3. 190쪽. 『綠旗』 1942. 10. 14쪽.
『京城日報』 1942. 4. 12.
朝鮮總督府編, 『施政二十五年史』, 朝鮮總督府, 1935, 168면.
文部省, 『国体の本義』, 文部省, 1937, 9쪽.
玄永燮, 『朝鮮人の進むべき道』, 綠旗聯盟, 1938. 4~5쪽. 129~130쪽.
森田芳夫, 『国史と朝鮮』, 綠旗聯盟, 1939. 127쪽.
朝鮮總督府, 『新しき朝鮮』, 朝鮮總督府, 1944: 15~25쪽. 82쪽.
田中英光, 『酔いどれ船』, 『田中英光全集』 第2卷, 芳賀書店, 1970. 236~237쪽, 244쪽.
丸山真男,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 未来社, 1988, 129쪽.

要 旨

雑誌『緑旗』は京城府初音町の緑旗聯盟から1936年1月に創刊され、1944年12月まで刊行された(1944年3月号から『興亜文化』と改題)。1924年4月、東京帝大理学部を卒業した化学者・津田栄が京城帝大予科教授として赴任した。津田栄は学生時代から日蓮宗を信奉し、とりわけ田中智学が主宰する「国柱会」の活動に参加して朝鮮の地にもこれを根付かせようとした。1925年2月に設立された緑旗聯盟は、1930年5月設立の緑旗同人会が1933年の紀元節に緑旗聯盟として再組織されて雑誌発刊にこぎつけたのである。

主要執筆者は津田栄のほか森田芳夫、津田剛(栄の弟)、津田節子、津田美代子などで津田一族が重要人物であった。創刊の初期には啓蒙的な文章が多かったが、京城帝大の日本人教授が執筆するようになり例えば高木市之助、安倍能成)、大東亜戦争が近づくあたりから、日本の文学者の寄稿、インタビューなどが増えてくる。その後、韓国人特に玄永燮、李泳根などが活発に活動したほか文学者たちも加わるようになった。

緑旗連盟は、「内鮮一体」と「皇国臣民化」の実現のため、その基本として「国語」普及・常用問題の事業方針に基づき、『緑旗』誌上では、従来からの連盟幹部及び主要な朝鮮人連盟員の論文を掲載し、その影響力を拡大することに加えて、「国語」特輯を組んだのである。そして朝鮮人の文章が、それまでの論文中心から主張・随筆随想・訪問記・葉書訪問・小説・創作・詩・短歌・座談会という多様な形態をもって誌面を飾り、以後、『興亜文化』と誌名を変えた後も途切れることなく続けたのである。

結局、緑旗連盟は宗教性を表に飾って社会を教化する名目で植民地支配権力の支配方針とイデオロギーを忠実に実践し、その尖兵として「内鮮一体」と「皇国臣民化」、進んでは「八紘一宇」、「大東亜共栄圏」などを叫びながら最後まで「草の根」侵略と支配者として、その一翼を担っていたのである。

キーワード：緑旗連盟、緑旗、内鮮一体、皇国臣民化、国語常用、八紘一宇、大東亜共栄圏、草の根

투 고 일 : 2015. 5. 31
심 사 일 : 2015. 6. 13
게재확정일 : 2015. 7. 4